‘이건희 컬렉션’ 수월관음도를 만나다

국립춘천박물관, 故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11월 3일까지 추성 부도 등 공개

10월 22일~11월 24일, 7점 전시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수경)은 ‘어느 수집가의 초대-故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의 서화 전시품을 두 차례에 걸쳐 교체해 선보인다. 전시에는 고려 11세기에 제작된 초조대장경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49를 포함해 총 9건 9점의 유물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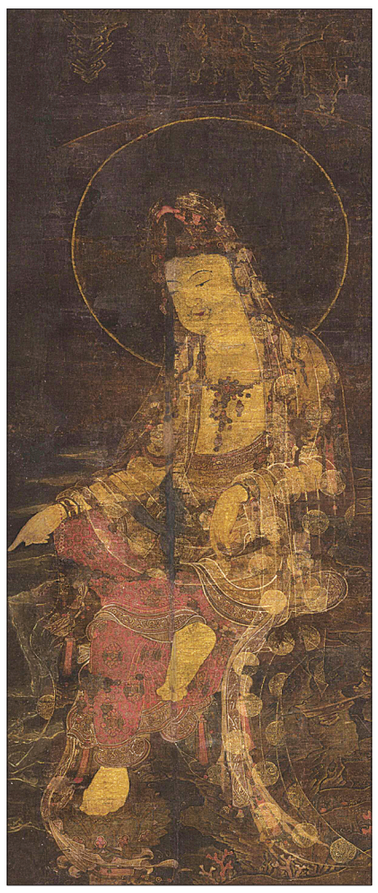
11월 3일까지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와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가 전시된다.

섬세하고 고귀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이 달과 물을 배경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금니 문양과 투명한 베일은 700여 년의 세월을 초월해 여전히 빛을 발한다. 금니로 경전 내용을 쓴 사경 ‘대방광불화엄경’ 권15 앞쪽에는 0.1~0.2㎜ 정도의 가는 금선으로 경전 내용을 압축적으로 묘사한 변상도가 있어 고려 불교미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을의 정서를 담고 있는 ‘추성부도’는 중국 북송의 문인 구양수(歐陽脩, 1007~1072)가 늦가을의 저물어가는 자연 현상과 인생의 무상함을 연결해 읊은 산문시 ‘추성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당대의 삶을 실감나게 포착한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는 김홍도의 탁월한 기량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0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고려 11세기에 제작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49 등 7건 7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은 현종(1011~1031) 때 거란족 침략에 맞서 국가적 차원에서 민심을 결집하고자 편찬한 목판 인쇄본으로, 불교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심을 결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국립춘천박물관 수월관음도.

강원 영월의 ‘보덕사’를 그린 19세기 전반의 실경산수화는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다. 보덕사는 단종(재위 1452~1455)의 무덤인 장릉을 지키는 사찰로, 한국전쟁 당시 훼손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세기 전반의 보덕사 규모를 짐작할 수 있어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경남 함양 안의면의 ‘화암(畫巖)’을 그린 18세기 중반 실경산수화도 함께 전시된다. 기이한 암석이 병풍처럼 늘어선 경관의 특징을 잘 살린 이 작품은 동시대 서화가 강세황(1713~1791)의 평이 곁들여 있어 조선시대 지식인의 실경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다.

책과 함께 진귀한 물건들이 놓인 책장을 그린 8폭 병풍 ‘책가도’와 달빛 아래 갈대밭으로 날아드는 기러기들을 묘사한 ‘노안도’, 19세기 문인화가 윤제홍이 석굴과 폭포를 그린 ‘방화굴’도 주목할 만하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보물됐다

국가유산청, 10월 16일 지정 공고

고려 석탑 특징 담겨…4.6m 규모

고려 석탑 특징이 잘 드러나는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이 보물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0월 16일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경내 적광전 앞에 위치한 높이 약 4.6m 규모의 석탑이다.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석(塔身石, 몸돌)과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으로 구성된 탑신부가 있다. 상륜부(석탑 꼭대기에 세워 놓은 장식 부분)는 노반석과 복발석으로 이뤄졌다.

오층석탑은 10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588년 사명대사 유정이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內延山寶慶寺金堂塔記)’ 기록에 따르면 고려 현종14년(1023년)에 사찰에 탑이 없어 청석(靑石)으로 5층탑을 만들어 대전 앞에 놓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고, 11세기 석탑의 전형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이 잘 나타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며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묘엄불교문화재단 묘엄상 후보 공모

10월 31일까지 직접·우편 접수

묘엄불교문화재단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를 공모한다.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 후보는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중에 선정한다.

후보 접수는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cafe.daum.net/myoeom.org)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직접 접수(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3층 화인빌딩 법무법인 천우)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를 참조하면 된다.

수상자는 개별 연락 후 재단 카페에 공지된다. 김내영 기자

해인사와 조선왕실의 남다른 ‘인연’

해인사 성보박물관 ‘인연 : 조선왕실과 해인사’ 특별전

내년 1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서

4개 주제로, 조선왕실 발원 소개

영산회괘불도·어필 병풍 등 공개

창건 당시부터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해인사와 조선왕실의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법보종찰 해인사 성보박물관(관장 현석 스님)은 10월 15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108일간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해인사 개산 1222주년 특별전 ‘인연(因緣):조선왕실과 해인사’를 개최한다.

해인사는 창건 당시부터 신라왕실과의 인연으로 시작됐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왕실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인사와 왕실사람들의 인연이 돋보이는 ‘해인사 동종(보물)’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고려 팔만대장경 인출본, 어필 병풍 등 그간 수장고에 잠들어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문화유산이 대거 공개된다.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

전시는 총 4개 주제로, 관람객이 조선왕실 사람들의 발원을 통해 그들의 소망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제1부 ‘고려 팔만대장경, 거룩한 불사를 이루다’에서는 고려 팔만대장경 인경불사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던 조선 임금들의 염원을 들여다볼 수 있다.

제2부 ‘궁궐사람들의 염원, 간절한 마음을 담다’에서는 조선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돼 해인사에 전해진 문화유산을 전시, 왕실과 궁궐사람들의 간절한 신앙심을 살펴본다.

해인사에는 예로부터 왕실의 원찰로 4명의 조선 임금 세조·선조·숙종·헌종의 어필이 전해진다. 제3부 ‘조선 임금의 어필, 위대한 이상을 꿈꾸다’에서는 임금이 직전 쓴 어필을 공개하고, 임금의 사상과 당시 시대상황을 보여준다.

마지막 제4부 ‘조선왕실과 스님, 각별한 인연을 맺다’에서는 오늘날 해인총림이 있기까지 조선왕실과 인연을 맺어 해인사를 빛낸 학조·사명·범운 스님을 조명한다. 김내영 기자

자연·도심 조화 이룬 그림서 ‘힐링’ 선물

혜림 스님, 천연염색 선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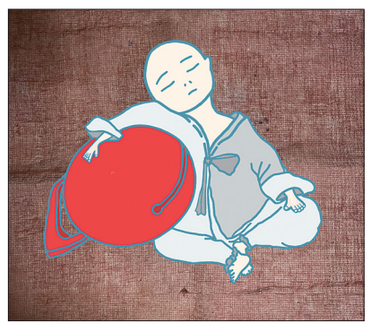
10월 23~29일, 경인미술관서

자연과 도심의 조화가 담긴 그림으로 힐링을 선사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색을 이용한 치유명상 지도와 작품활동을 함께해온 세종특별자치시 미소선원 선원장 혜림 스님이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천연염색 선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하늘 아래 마음 여정’을 주제로 한 9번째 개인전이다. 별자리의 신비로움과 부처님(내면의 평화)·동자승(순수함)의 깊은 지혜, 밤하늘의 고요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가 담겼다. 전시에서는 자연과 도심의 조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천연염색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컬러와 별자리 탐험’ 코너에서는 별자리와 관련된 색채와 그 의미를 소개하며,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혜림 스님 作, 마음여정 70*80cm.

관객이 직접 명상할 수 있는 체험 공간에서는 별자리, 부처님 이미지를 활용한 명상 세션을 제공한다. 관객 스스로 복잡한 삶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별자리, 명상, 부처님, 동자승이 교훈을 일러준다.

특히 전시에서는 자기 성찰과 치유로 이끄는 최봄보리 작가의 작품 ‘동자승’도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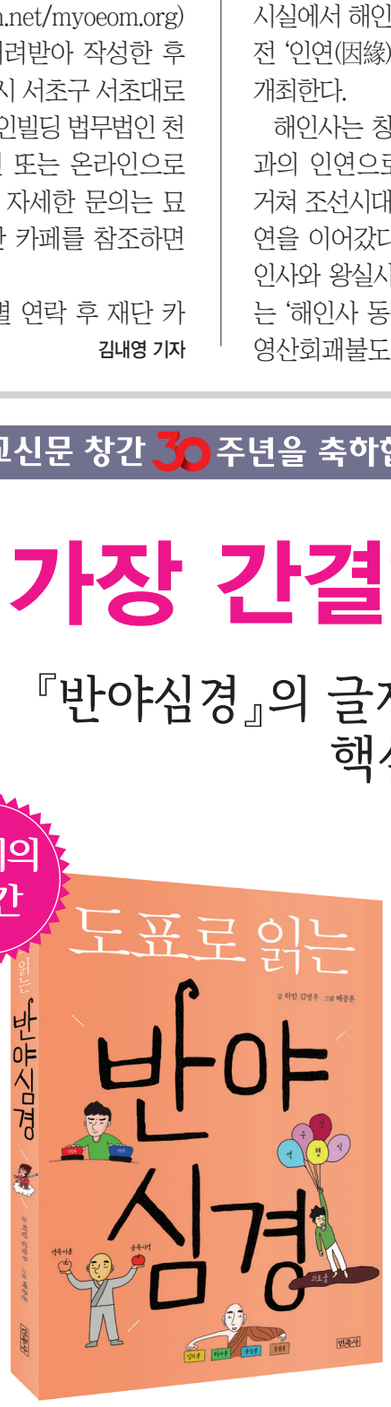
혜림 스님은 “하늘의 별들은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마음의 여정을 표현한 이번 전시가 관객들의 마음속 우주를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